

7. 오가신잔 전승관: 공연, 나마하게 장부 이야기: 손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마하게 중 한 명이 불쑥 내민 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마하게 장부’라 불리는 것으로 지난 1 년 동안 신들이 봐온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들은 가까운 신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어느 아이가 울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지, 어느 마을 사람들이 일을 게을리하는지 지켜 보고 있습니다. 나마하게는 가장에게 아무리 진실을 숨기려고 해도 모두 알고 있다고 훈계합니다. 가장은 놀라면서도 짐짓 조심스러워집니다.

나마하게는 장부를 넘기며 가장에게 손자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이 이치로라는 남자아이는 매일 학교에는 가지만 동급생을 놀려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나마하게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에만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가장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게임이 끝나면 공부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나마하게에게 말하지만 그 변명도 무색하게 장부에는 그렇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동요한 가장은 손자가 내년에는 학교 공부에 더 집중하고 놀이를 줄이도록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